

올해 5·18 45주년 기념 행사도 '반쪽'으로 치르나

시민단체 추천 상임위원장 선임 반발, 오월3단체·기념재단 행사위 탈퇴 "교차 주최 약속 시민단체가 어겨" ...행사위 "추천위 합의 따라 선출한 것"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이하 오월단체)와 5·18기념재단(재단)이 올해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 행사위원장단에서 탈퇴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올해도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으로 '반쪽짜리' 5·18 기념행사를 치를 전망이다. 최근 광주도심에서 보수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면서 5·18을 편향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광주지역 사회의 연대와 화합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더 확산하고 있다.

오월단체와 재단은 지난 12일 열린 행사위 전반기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고 행사위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위는 정부 공식 5·18 기념행사와 별개로 전야제 등 기념 행사를 운영하는 민간 조직으로, 오월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돼 5·18 행사의 꽃인

'전야제'를 주관하며 민주평화대행진, 시민난장, 각종 시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해 온 기구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023년 제43주년 행사 당시 탈퇴 이후로 지금까지 불참 중이었으며, 올해는 5·18유족회와 재단까지 행사위원장단에서 빠졌다. 오월단체와 재단까지 모든 오월 관계자들이 행사위에 불참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오월단체들은 행사위로부터 독립해, 보존부에서 받은 예산 등을 활용해 자체 행사만 주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월단체 측은 행사위 탈퇴 이유로 "시민단체가 5·18행사 상임위원장을 오월단체, 시민단체 간 격년으로 번갈아가면서 맡자는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사위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오병윤 전 진보당 국회의원을 제45주년 상임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44주년 행사위 상임위원장을 시민단체

가 추천한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맡았던 만큼, 올해는 오월단체 추천 인물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했다는 것이 오월단체 주장이다.

앞서 행사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위인백 5·18 교육관장(시민단체 추천), 2019년 김후식 5·18부상자회(오월단체 추천), 2020년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시민단체 추천), 2021년 원순석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오월단체 추천), 2022년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시민단체 추천), 2023년 최철 민청학련동지회 공동회장(오월단체 추천) 등 순서로 선임돼 왔다.

오월단체는 "당직을 갖고 있는 정당인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오 상임위원장은 현재 진보당원으로 활동 중인데, 이처럼 당직을 가진 자가 상임위원장이 되면 대내외적으로 광주와 행사를 보는 시선에 정치적 편견이 작용하면서 5·18의 전국화, 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월단체 측에서는 지난해 10월 상임위원장을

공모 당시 5·18유족회 회원 A씨를 상임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행사위는 상임위원장 선출기구인 '추천위원회'에 이미 5·18유족회 회원이 있으므로 A씨는 공모 제척 대상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에 5·18유족회 측은 "애초 추천위원 추천을 요구할 때부터 제척사유에 대해 공지했어야 하는데, 상임위원장 공모가 시작되고 나서야 당사자라 공모 불가" 공지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단체 측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오월단체를 거수기 취급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월 단체는 보존부 예산을 받아 5·18 당사자들이 주관하는 추모제, 부활제 등을 기존대로 열 것이며, 나머지 행사는 이제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행사위 측은 "지난 2021년 제41주년 기념행사 이후부터 상임위원장을 '추천위원회' 합의에 따라 선출하기로 하면서 기존 오월단체·시민단체가 위원장을 번갈아 추천한다는 구두 합의는 사문화됐다"고 반박했다.

행사위 측은 애초 5·18유족회가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아 심사하기로 동의했으며, 공

모 이전까지 아무런 반발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추천위원을 5·18유족회 회원으로 앉혀 놓고도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당인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과 관련, 행사위는 "상임위원장은 현재 정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게 없고, 이후에 본인에 대해 어떤 것도 말을 생각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선임됐다"며 "다른 후보자들도 정당인으로서 광주시의회를 하는 등 정치 경력이 있었으며, 과거에 가진 당적을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게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지난 2023년 5·18 가해자 단체인 특전사동지회와 화해하겠다며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열었다가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은 끝에 행사위원장단에서 제명돼 5·18유족회만 행사위에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오월단체가 특전사 단체와의 화해 선언을 반복하면서 올해 다시 행사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찬탄 집회 주최측 "尹부부 뱃페이킹 영상 무관"

"초청 안한 유튜브가 상영" 경찰청, 입건 전 조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를 주최한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뱃페이킹 영상 상영 논란과 집회주최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장소 인근에서 상영된 윤 대통령 부부 뱃페이킹 영상이 마치 공식적인 집회 영상이었듯 보도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은 주최측이 초청하지 않은 유튜브가 상영한 것으로 탄핵 찬성 집회 주최측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타 지역 거주 유튜브 A씨가 이날 도정 앞 집회현장에서 LED영상 트럭을 이용해 재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비상행동은 "A씨는 광주비상행동에서 공

식 초청한 단체가 아니며, 사전에 집회장에 해당 트럭의 배치를 조율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 그동안 광주지역사회는 차별과 혐오 없는 집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해당 영상 또한 광주 시민이 문제를 제기해 재생을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뱃페이킹 영상이 공식 상영된 것처럼 말하면서 광주시민과 광주비상행동의 뜻을 왜곡하는 일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 뱃페이킹 영상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또는 광주경찰청 중 한 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신속 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을 차단 조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영상 제작·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청년들 "내 일자리 어디 있나"

17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막한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플러스'를 찾은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상담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번 행사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직무 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 등 300여 개 사업장에서 470명을 모집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음주단속에 불법체류 들킬까 도주하다 상가 "광"... 외국인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특정 범죄가중처벌대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상가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주민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음주단속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달아나다 상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가 주민 한 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동승했던 외국인 B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A씨는 다음 날인 11일 낮 12시 50분께 충남 예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연극계 '미투' 관련 극단 대표 징역 3년 선고

광주 연극계에서 벌어진 '미투(#me too)' 사건(2022년 6월 30일자 광주일보 7면)과 관련해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은 극단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극단 대표 A씨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와 극단 연출가 C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극단 소속 여배우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2022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자들

은 광주지역 연극계에서 알아주는 인물들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키워줄 수 있다', '좋은 배역을 줄 수 있다' 등의 말로 이제 막 연극을 시작하는 여성들을 꼬여 성폭력을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다만 수사 진행 경과와 A씨의 건강 등을 고려하고 방어진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